

2016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교회들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시지 1

교회들의 실패 —
바빌론의 원칙과 바빌론의 원칙을 이기는 길

성경: 계 17:1-6, 18:2, 4, 7, 레 1:3-4, 9, 6:10-13

- I. 바빌론(히브리어로 바벨)의 원칙은 인간의 역량에 의해, 즉 벽돌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무언가를 건축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다 — 창 11:1-9.
- A.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반면에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사람이 고안한 사람이 만든 생산품이다.
 - B. 바빌론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그들의 타고난 역량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시도를 한다 — 비교 고전 15:10, 58.
 - C. 하나님의 건축물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사람이 만든 벽돌로 건축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신 돌들과 신성한 일에 의해 건축된다 — 고전 3:12.
- II. 바빌론의 원칙은 위선이다 — 계 17:4, 6, 마 23:25-32, 눅 12:1.
- A. 아간의 죄가 의미하는 것은 외모를 위하여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추구하고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하면서 아름다운 바빌론의 외투를 욕심낸 것이었다 — 수 7:21.
 - B. 이것은 성령께 거짓말을 했던 이들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였다 — 행 5:1-11.
 - 1.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했다. 그들은 단지 그런 것처럼 가장했다.
 - 2.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행동했다.
 - C. 우리의 실지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다 — 마 6:1-6, 15:7-8.
 - D.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행한 모든 것은 신부의 원칙이 아니라 창녀의 원칙 안에서 행한 것이다 — 요 5:41, 44, 7:18, 12:42-43, 고후 4:5, 살전 2:4-6.
- III. 바빌론의 원칙은 자신이 과부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며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다 — 계 18:7.
- A. 오직 타락한 이들만이 자신을 과부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현시대에는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과부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없다 — 마 9:14-15, 눅 18:3.
 - B. 우리의 생활 안에서 지나치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치이며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다 — 딤후 6:6-10.
- IV. 바빌론의 원칙은 창녀의 원칙이다 — 계 17:1-6.
- A. 바빌론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 창 11:4.

1. 우리의 주님 이외의 다른 어떤 이름이라도 취하면서 교회를 교파로 나누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 비교 계 3:8.
 2.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인 교회는 자신의 남편 이외의 다른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된다 — 고후 11:2, 고전 1:10.
- B. 바빌론은 혼돈을 의미한다 — 창 11:6-7.
1.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 몸을 위한 하나의 유일한 가르침을 가진 한 사역 아래서 오직 한 생각과 한 입을 가져야 한다 — 롬 15:5-6, 고전 1:10, 빌 2:2, 딤후 1:3-4.
 2.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으며 이곳에는 신성한 하나가 있다 — 요 4:23-24, 엠 4:3.
 3. 우리의 남편은 한 분이시며 그분의 아내인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어떤 분열도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 — 마 19:3-9.
- C. 바벨에 있었던 반역적인 사람들에게는 흠여짐이 있었다 — 창 11:8.
1. 고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 년에 세 번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 이것은 바벨에서 흠여지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 신 12:5, 16:16.
 - a.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장소인 이곳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백성의 하나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켜졌다 — 시 133 편.
 - b.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을 상징할 뿐 아니라 참된 하나의 터, 곧 지방의 터를 상징하기도 한다 — 행 8:1, 13:1, 계 1:11.
 - c. 바빌론에서 나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터 위에" 있어야 한다.
 2.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운 사람인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의 이기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왕국, 혹은 제국을 갖기 위한 사람의 야심 때문에 발생한 분열의 죄이다 — 왕상 12:26-32.
- D. 바빌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게 속한 것들의 혼합이다.
1.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을 탈취하여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우상의 신전으로 옮겨 갔다 — 대하 36:6-7, 스 1:11.
 2. 신약에서 이 혼합은 큰 성 바빌론으로 확대되었다 — 계 17:3-5, 비교 계 21:18, 22:1.
- V.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바빌론으로부터 나오도록 부르셨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 계 18:4-5.
- A.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빌론의 성격을 가진 것은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 없다 — 고후 6:17-18.
- B.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빌론의 원칙을 미워하신다 — 계 11:2, 18.
- C. 어중간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바빌론이라고 불린다.
1. 우리에게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 중에서 그분을 향해 절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 계 3:16-19.
 2. 우리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에만 우리도 바빌론의 원칙을 미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 비교 계 2:6.
 3.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어떤 영광이나 존귀도 추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길 — 요 7:18, 12:26, 빌 1:19-21 상, 비교 출 28:2.
 4. 주님은 우리가 바빌론의 원칙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신다.
- D. 하나님께서 창녀를 심판하시고 그녀의 모든 일들 부수시며 그녀의 모든 어떠한 것과 그녀가 대표하는 원칙을 던져 버리실 때 하늘에서부터 '할렐루야!'라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 계 19:1-4.
- VI. 바빌론의 원칙을 이기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완전하시며 절대적인 생활을 사신 것과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생활을 살도록 하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심을 예표한다 — 레 1:3, 9, 요 5:19, 30, 6:38, 7:18, 8:29, 14:24, 고후 5:14-15, 갈 2:19-20, 빌 1:19-21 상.

- A.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러한 연결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점과 잘못들을 가져가시며 그분의 모든 미덕들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분과 하나되는 것을 요구한다 — 레 1:4.
- B.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생명 주시는 영, 곧 우리가 안수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고전 15:45 하, 고후 3:6, 17, 4:5) 즉시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사셨던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의 반복인 생활을 살도록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일하실 것이다(비교 출 38:1).
- C.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었던 것은 번제물이 어두운 밤인 이 시대를 거쳐 아침까지, 곧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태우는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1:9, 벧후 1:19.
- D. 번제물을 바치고 남은 결과인 재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이다(레 6:10). 제사장이 세마포로 만든 의복을 입는 것은 재를 다룰 때 섬세함과 순수함과 깨끗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장이 다른 의복을 입고 재를 진영 밖으로 옮기는 것(레 6:11)은 번제물의 재를 위엄 있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 E. 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나게, 즉 재가 되게 한다(갈 2:20 상). 재를 제단 동쪽 옆, 해가 뜨는 곳에 둔 것(레 1:16)은 부활을 함축한다. 번제물과 관련하여 재는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롬 6:3-5).
- F. 하나님은 이 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이 재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가 감소되어 재가 될 때,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롬 12:2, 고후 3:18). 재인 우리는 부활 안에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귀한 재료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된다.
- G.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 덩이를 태워야 한다.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 레 6:12-13.
1. 제사장이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는 것은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갈망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역은 거룩한 불에 땀감을 더함으로 불이 잘 타올라 하나님의 음식인 번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침은 새롭게 불태워지기 위한 시작을 의미한다 — 레 6:12-13, 비교 눅 12:49-50, 롬 12:11, 딤후 1:6-7.
 2. 번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화목제물을 달콤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속적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비교 롬 12:1) 기초가 놓일 때, 화목 제물의 기름 덩이를 태우는 것으로 상징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달콤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모두 불에 태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과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모두 불에 태워지는 문제임을 의미한다 — 레 6:12-13.